

## 다니엘 32 강

계속해서 다니엘서 9 장 7 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의는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 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 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 장 38,39 절 보면) 외쳤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외치면서 이 약속은 우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데에는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B.C606 년부터 기름부음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 주었던 70 이레중에 69 이레가, 다시말해서 483 년이 흘렀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이레를 남겨두고 사도베드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한 이레 동안 이전에 69 이레보다 훨씬 더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하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하면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했고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서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을 듣지않고 또 거역하고 죽였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마지막으로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그럴때 그들이 그냥 한마음으로 돌을 던져 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스테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바로 스테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테반을 통하여 간곡하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그들은 성령까지도 거역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때문에 저들은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혜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참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때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어떤 교파는 침례가 구원을 해준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곳은 믿음이 아니라 침례가 구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았다. 세례받은 날이 참 축하받는 날이다. 진짜 믿어야 되는데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세례받은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안심하고 사는 것을 볼때 너무나 가슴아픈거죠. 사도행전 2장은 하나의 과도기입니다. 사도바울이 성령을 받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온겁니다. 사실 성령 침례죠 그제? 성령침례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때 성령이 들어 오셔 가지고 내 영을 침례해주는 거죠. 이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충만은 또 다릅니다. 성령충만은 계속 기도하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것이 이게 바로 성령충만이죠. 성령 세례, 성령 침례란 말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거듭나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장 보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마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또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실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크리스찬 주( ChristianJew)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제 한 이레가 남았는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들은 다른 예수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서 옛날 바벨론이나 앗시리아나 그리스, 로마나 히틀러 못지않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야곱의 고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본토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세계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도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한거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2 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죠. 에베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말할 때 에베소서 2 장 13 절 보면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비참한 죄인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멀리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모여들은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 장에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상대한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 왔지만  
 처음에 오순절날 설교할 때는 전부 유대인들 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없었고 이 시대의  
 구원계획 은혜복음도 제시되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사도바울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은혜의 복음을 몰랐습시다. 나중에 배워서 알았습시다. 우리도 한 때는  
 멀리 있었습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가 없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 2 장 12 절에서 19 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몇주  
 전에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들었습시다. 자 8 절 보니까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다니엘은 모든 수치가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죽은 왕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죽은 왕들이 있고 또 현재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왕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습니다. 많은 벼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고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자백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고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죄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런데 왜 자백을 못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죄가 죄인줄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때 바벨론보다 더 큰 바벨론이 될 로마교회에 포로로 잡혀있어서 WCC 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도 이 다니엘 한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같은 소수의 사람만이 또 그 외에 몇명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소수의 청년들이 깨어 있어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찾아 보겠느냐? 인자라고 그럴때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상재림하기전 휴거 전까지는 이땅에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죠. 인자가 올 때는 그렇단 얘기죠.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시켰더니 누가 계속 죄를 자백한다면 저사람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요. 뭐 해달라고 구해야되는데 기도도 못한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럴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는 기도야말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자백할 때 씻어줘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기도죠. 우리는 사실 자백하고 감사할거밖에 없어요. 다 주셨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또 뭘 달라 그럼니까?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실 자백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요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자녀들이 뭘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말만 하면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도. 아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앞에 나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뭐 있는것 다 주고 싶겠죠.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데 자기 딸이 교회도 안다니고 그렇게 말도 안듣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권산데 엄마가 무슨말을 하니까 엄마 따귀를 때렸대요.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도 그게 죄인줄 모르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애가 갑자기 들어 오더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더래요. 이게 자백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자백하는것, 우리는 사실 자백하고 자백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되겠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되도록 힘쓰라.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휴거의 메세지가 전해진거예요. 4 장 16 절부터 18 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온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달리지도 않는 말은 때려봤자 가만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마찬가지로입니다.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9 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사실 요즘 모든 집회들 부흥집회를 포함해서 또 TV 나 라디오의 전도집회 실황 중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나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이란건 외치지만 자기 자신은 이런 죄를 진 죄인입니다. 나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멕시코에 있는 우리 크리스토퍼 목사는 항상 설교할때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다 자백합니다. 옛날 마약했던것 다 고백하면서 나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설교자들이 자기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휴 나같은 사람은 안되겠다. 나같은 사람은 교회에 있을곳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이야말로 주님 다음으로 깨끗한 사람아닙니까?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로 자기들의 혼만 간신히 구원받는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의인인 다니엘이었는데, 구약적인 의인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똑같이 우리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주를 거역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한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말씀안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빛이 들어 오니까, 그 빛이 계속 비추면 내안에 속속들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10 절에 보니까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날 보게되면 죄의 자백을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성경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일에 감사하라는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말씀도 믿지를 않았고 살행하지도 않았고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안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전도하지  
 않은것이 죄인줄 모릅니다. 특별한 은사받은 사람만 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들어오신 겁니다. 옛날 사무엘은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때 내가 기도하는것을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안하는 것도  
 죄지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많고 TV 방송도 많아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 방송은 거의 들을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나오니까. 돈 주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차라리 마약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라면 다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구원받고 그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어느날 주사기를 꽂고서 이렇게 낚고 있는데 누가  
 밥준다고 그러니까 거기가서 앉아있는데 아 누가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흰데 자기 아는 사람같아서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마약하던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변한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고 할때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듣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대요. 나도 저사람처럼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게 그대로 된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번 합니다. 사도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었다. 아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발로 차지 않은것 같으냐? 이 얘기를 복음 전할 때마다 했고 나는 죄인중의  
 괴수라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처음에는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라했고 나중에는 성도가운데 지극히 작은  
 성도라 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아,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으로 들끓는  
 때가 지금 되었고 타락하고 변질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미국이 청교도가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또 한국이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참 어제 제가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제가 그걸 안보는데 잠깐  
 들어 누웠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옥해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모르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하고 다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는 이거는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회개해야 되는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구요. 지 11 절 보니까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 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다니엘은 이 한가지를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주님만이 정결합니다. 저는 타락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러신다한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옳으십니다. 저는 악합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봤잖아요. 어제 책들로 깨달았죠? 예레미야서에 70 년만에  
 황폐함이 끝난다. 한 68 년정도 됐을때 그걸 깨달았잖아요? 다른 성경을 쭉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이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노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빛이 임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것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죄를 자백할줄 모르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까닭도 모르고 무엇을 자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르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내가 교제가 있는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전화기에 플러그가 빠져 있는데 송화기에 대고 아무리 열심히 얘기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셀폰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셀폰이 끊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이 달라가지고.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런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직통되거나 셀폰보다 더한 직통전화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한번 신명기 8장 20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뭘니까?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직접 음성으로 들어 가지고 기록한 율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다 하나님의 말씀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28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입에서 끊어 졌다는 거예요. 사도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나오지 말고 그게 바로 생명이 되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신명기 27 장으로부터 29 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살면 복을 받는단 말이 나오지만 그 후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는 다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죠. 설교할 때 축복받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저주 받는 다는 말은 잘 안해요.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당연하게 받은거죠. 그리고 그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한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게 뭐죠? 주로 시인하는게 뭐죠? 나는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나이다. 그런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만이 온전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을 때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서 믿죠? 그냥 따라 기도하라는 몇마디 기도안합니다. 꼭 무슨 다른 신 하나 더 있는, 하루는 마켓에서 전도를 하는데 인도사람들이 믿겠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야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아 이 양반들이 신들이 짝악 있는데 예수 신(神)을 하나 더 갖다 놔드라고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준다고 하니까 그냥 악세사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믿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요즘 헛된 경배와 찬양이 많죠? 진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찬송을 멋있게 불러도 뭐 오케스트라 갖다놓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남녀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울개를 치고 아무리 멋있게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걸 경배와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요즘에 교회를 부흥시킬려면 그게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멋지게 해놓아야 한다. 물론 그것도 갖춰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깨끗하고 회개한 심령이 안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애깁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란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들을 자백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계속 9 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70 이레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결국 뭔가하면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앞 일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읽어도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뭘로 풀니까? 비유로 풀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비유로 푸는 거예요. 왜 못깨달아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사도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미신을 섬기던 책들을 다 불로 태웠어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죄를 자백하고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죄를 자백하고 버리게 되면 주님의 피가 와가지고 다 씻어 줍니다.그러면 깨끗해져 가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죄를 다 감추고 있으니깐 결국은 서로가 괴로운거예요. 이래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정말 다니엘같이 정말 다니엘의 심정이 되어서 다 모든것을 자백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될때 항상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을때마다 듣게 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서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이상하지 않죠?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그 음성이 같이 들리니까. 그렇게 주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음성외에는 더 기쁨없도다. 날 사랑하신주.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다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들을 때 모든것이 다 풀리는겁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다 풀리는 겁니다. 옛날 솔라미 여인처럼 솔로몬의 품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뭐라고 지껄여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왕의 침상에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당한걸 생각하면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요한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까지 이겼는데 뭐 사람을 못이기겠습니까? 핍박을 모욕을 못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 세계방방곡곡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음성을 듣고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젊은 청년 다니엘이 온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장의 말을 듣고 이제 주님 오실때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러한 복을 받는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항상 시도때도 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자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때 우리 육신의 죄 생각의 죄들이 다 자백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저들이 무엇을 자백해야 될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고 부모들이 비록 부자는 아니고 또 미국을 잘 모르고 또 무식할지 몰라도 저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부모들을 멸시하거나 아버지 이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자백하고 무릎을 꿇는 이러한 축복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회복이 되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축복이 주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기름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